

# ALLOTMENT



Cover Story

예수병원과 발걸음을 맞춰 함께 길을 걷어가는

최기숙 총무과장 & 박양서 전산정보과장

## Editor's Pen

초록이 가득한 오월은 행복한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병원 식구들도 가정의 달을 맞아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며 한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도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으로 소통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점은 인정하고, 부족함은 보완하며,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사과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함께 걸을 사람과 우리 '동행'합니다.

# ALLOTMENT

Presbyterian Medical Center Magazine 얼랏먼트

**발행일** 2022년 5월

**발행처** 예수병원

**발행인** 예수병원장 김철승

**편집인** 홍보실장 송승현

**기획** 학예연구사 남지현 | 홍보실 국하은

**뉴스** 홍보실 박광진

**사진** 작가 김내성

**디자인** 오케이민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홈페이지** www.jesushospital.com

예수병원을 팔로우 하셔서  
예수병원의 다양한 소식과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 SPECIAL THEME

04

### Photo Essay

예수병원

행복한 동행

10

### Interview

총무과

14

### PMC Talk

내 품에 새겨진 이름



## APPROACH

16

### Activity

반려견과 동행하는 임실 여행

"같이 걸을래?"

20

### 칭찬 Challenge

22

### History

로이드 보그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지역민과의 동행

24

### PMC Member

전산정보과

차세대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다

28

### 슬기로운 취미생활

어복을 지닌 '용왕의 딸'이라

불러주세요.



## ACCOMPANY

30

### Health Story

토마토

신록으로 다가온 여름의 마중

32

### Relation

함께 걷는 길에

고른 봄별을 내어주는 걸사람

34

### PMC Rookie

예수병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새 걸음

36

### PMC NEWS

40

### Donation

42

### 진료 일정 안내



# 同行

동행 ——— 같이 길을 감, 같이 길을 가는 사람.



걸어가는 이 길에 안온한 발 맞춤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건네는 돌봄  
예수병원을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민과의 동행입니다.



맞춰 걷는 걸음,  
함께하는 손길에 깃들여 있는  
믿음은 확신을 실어주어  
우리를 치유로 인도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한자리에서 맞이해 준  
예수병원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 상대를 살피며 걸음을 맞추는 참된 동행의 지혜

총무과



같은 길 위에 선 모두가 같은 속도와 보폭으로 걷는 것은 아니다. 참된 동행은 상대를 살피며 걸음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예수병원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도맡으며 의료진의 '동행인'으로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총무과의 최기숙 총무과장을 만나, 그가 지향하는 동행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 39년 쉽 없는 걸음에도, 여전히 앞날의 동행을 그린다

최기숙 총무과장이 예수병원과 동행한 지도 어언 39년이다. 예수병원에 입사한 1983년 이래 평생 이곳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 누구보다도 예수병원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일 터. 긴 세월 매일같이 같은 길 위를 걸어왔음에도, 그는 여전히 지난날이 아닌 앞날의 동행을 그린다.

예수병원의 경리과에 입사해서 원무과와 보험과로, 또 기획예산과에서 자재관리과, 일반행정과로 적을 옮겨 다녔다는 최기숙 총무과장. 2021년 12월에 총무과장으로 발령될 때까지 행정 분야 업무 중 그가 거치지 않은 일은 거의 없다. 재무부터 인사까지 방대한 업무를 경험하는 동안 베테랑 살림꾼이 다 되었음은 두말할 것 없는 사실. 그가 오랫동안 '통련'할 수 있었던 비결을 꼽자면 제각각의 업무가 지닌 무게를 허투루 넘겨짚기보다는 정확히 알고 행하는 성실성과 그걸 양어깨에 짊어지고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아닐까? 정작 그는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겸허히 말한다.

상대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동행의 지혜를 몸소 깨우치고 삶을 통해 행하는 사람, 그가 걸어서 보폭을 맞추어 주는 한, 예수병원의 의료진은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나아갈 수 있을 테다.

예수병원의 총무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는 병원의 주요 업무인 진료 담당은 아니지만, 병원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14명 직원이 병원 가족의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재정관리팀, 급여관리팀, 행정운영팀, 인재운영팀 이렇게 네 분야로 나뉘어, 인력 채용부터 급여 지급, 회

게, 행사 진행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직원에게 필요한 자  
질이나 덕목을 꼽자면 급여 및 회계 업무 처리를 위한 고도의 전문성이나 청렴함이 아닐  
까 합니다. 또한 신규 채용, 승진 등의 업무에서 인사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안에 각별  
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병원 내 돌발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긴장감  
을 유지하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합니다. 아울러,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 계발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식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칠 때에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과장님만의 동행의 지혜가 궁금합니다.

우리 부서는 병원 내 급여, 인사 등을 담당하고 있어 직원과의 소통이 중요한 부서입니  
다. 직원 출장 비용 신청이나 근태와 관련하여 가끔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관점  
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란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상대방  
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으로 갈등의 원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이를 통해 활기차고 친절하  
며 일하기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려 합니다. 이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과원들과 함께하  
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과원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예수병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  
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 | 2

- 1 \_\_\_\_\_ 총무과 열네 명의 직원들은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예수병원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해 힘쓰고 있다.
- 2 \_\_\_\_\_ 예수병원과 39년 동안 동행해 온 최기  
숙 총무과장. 이해와 배려를 몸소 실천하며 총무  
과를 이끌고 있다.



기억에 남는 동행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또, 앞으로 예수병원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동  
행하고 싶으신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억나는 일화로는 채운 측정 및 출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1,500명의 병원 전 직원  
얼굴 사진을 촬영·등록했던 일입니다.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 공간에서 병원의 모든  
직원과 눈을 마주치며 사진 등록을 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또, 지난해 12월 인재운영팀  
이 기획재정과에서 총무과로 조직 개편되었는데,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걸  
려 4월에야 총무과 사무실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사무용 용품들을 옮길  
생각에 걱정이 앞섰지만, 총무과 전 직원이 두 팔 걷고 애쓴 덕에 인재운영팀이 새로운  
보급자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재운영팀 사무실을 찾지 못해 해매던 직원들  
이 많았는데, 이제는 혼선 없이 새로운 사무실에서 친절과 미소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진료 파트와 간호 파트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을 대용하느라 늘 비상  
상황이었는데요. 총무과 역시 인력 투입과 행정 지원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리 없이  
제 몫을 해내며 함께 극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EMR 시스템 도  
입,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등 병원의 선진화와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예수병원을 이끌어  
온 사랑하는 선배, 동료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세밀하고 충실히 행  
정을 뒷받침하여 병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6  
병원의 선진화와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99

### Mini Interview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인터뷰 영상이 재생됩니다.



인재운영팀  
김동진 팀장

“의료진의 애로 사항과 요구 사항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  
니다. 더 나아진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을 생각하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급여관리팀  
김은영 팀장

“병원 안 여러 직종의 특수성에 맞춰서 급여  
작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  
은데요. 급여 지급일마다 ‘애쓰셨습니다.’라  
며 독려해 주는 말들이 큰 힘이 됩니다.”



재정관리팀  
정은숙 팀장

“지난 12월 조직 개편으로 인해 팀원 대부분  
이 교체되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한 마음이  
앞섰지만, 이제는 제법 안정되어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행정운영팀  
박진문 팀장

“병원에서 각종 행사가 열릴 때 시작과 끝  
에는 늘 행정운영팀이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  
면 비록 몸은 힘들지만, 참여자들이 만족하  
시는 모습을 보면 매우 뿌듯합니다.”

## 내 품에 새겨진 이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마음에 팬스레  
툭툭거리게 되고, 온전한 진심조차  
전하기 꺼려지곤 하죠.  
같은 시간, 같은 기억으로 이어져  
내 품에 새겨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모두 표현해 내기 힘든 이들에게  
그간 전해지 못했던 마음을 적어봅니다.



부모가 됐을 때 비로소  
부모가 베푼 사랑의 깊이와 감사함을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합니다. 곧 가정을 이루는 저에게 부모님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사춘기를 지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후 결혼을 앞두고서야  
함께 보낸 시간을 돌이켜 보니 부모님은 언제나 곁에서  
미소로 지켜봐 주셨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총무과 송지훈



사랑스러운 우리 집 막내 바비!  
늦은 밤 집에 들어갈 때도, 이른 새벽 집을  
나설 때도 졸린 눈으로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해 주고, 형 대신 엄마와 아빠에게 애교도  
부리면서 말동무가 되어주어서 정말 고마워.  
지금처럼 항상 밝은 모습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 가족으로 있어 주렴.  
PS. 벽지는 그만 뜯었으면 좋겠어.

재활센터 박성결



너의 한없이 맑은 웃음에 엄마는  
하루 내내 쌓여있던 짜증도, 무겁게 온몸을 짓누르던  
피로도 거짓말처럼 모두 녹아내린다. 엄마의 엄마, 아빠처럼  
언제나 너에게 변함없이 든든한 엄마, 네가 존경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할게! 엄마도 '엄마'라는 이름과  
역할이 처음이라 아직도 서툴고 매일 실수하고는 하지만  
이런 엄마에게 잠자기 전에 다가와 사랑한다고 속삭여 줘서  
정말 고마워. 온 마음 다해 정말 사랑해♥

완화의료센터 주효경

사랑하는 아내에게  
26살, 의료봉사 활동에서 너를 처음 만나 6년의  
연애 끝에 너와 결혼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해.  
앞으로 남은 긴 여정 속에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너와  
미래를 계획하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음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많이 부족하고 어설피지만, 항상 믿고  
의지해 줘서 정말 고마워. 듄직하고 자상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며  
오랫동안 함께하자. 예술아 사랑한다.

시설관리과 김영찬



나의 사랑 톨이야♥  
나에게 8년 동안 큰 사랑을 안겨준 톨이야.  
언니가 부족했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정말 고마워. 내 인생에 너를 만난 건 큰 축복이고  
행운이야. 앞으로 언니가 맛있는 간식도 많이 사줄게.  
우리 계속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함께하는  
시간에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더 많기를 바랄게.  
사랑해 톨돌.

자재관리과 김은아

## “같이 걸을래?”

### 반려견과 동행하는 임실 여행

때로는 사람보다 동물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다.  
구태여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기에,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벗.  
가족만큼 가깝고 친구만큼 든든한 반려견과 동행할 여행지를 소개한다.

## ‘오붓하개’ 치즈마을 나들이 어때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는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 시설과 전용 공간은 흔치 않다. 모처럼 반려견을 데리고 콧바람 쐬러 가고픈 날, 발걸음을 망설이고만 있다면, 주저 없이 임실을 추천한다.  
임실에 왔다면 들르지 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으니, 바로 임실치즈테마파크이다. 이곳은 애견 동반 입장이 가능한 관광지로,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수칙만 지킨다면 오붓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신선한 치즈를 손수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생생한 체험형 관광지이다. 유럽의 어느 마을을 고스란히 옮겨온 듯 이채로운 경관으로 꾸며져 있어, 마치 해외여행을 나선 듯 이국적인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나들이에 나선 동물의 웃음기 가득한 표정이 반려인의 얼굴에 번지며, 전염성 강한 행복에 흠뻑 빠진다. 나란히 걸음을 맞추며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는 동안, 반려견과 반려인 사이의 마음의 거리는 한 발짝 더 가까워진다.

## 오수 의견관광지에서는 ‘눈치보지 마시개’

임실군 오수면에는 몸을 바쳐 주인의 목숨을 구한 충직한 개에 대한 의견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오수의견관광지’는 이 설화를 바탕으로 조성한 공원이다. 이곳에서 반려인들은 도심과는 달리 안심하고 슬렁슬렁 여유를 부린다. 반려견이 여기저기 코를 킁킁대며 풀 내음, 흙 내음을 맡도록 기다려 주고,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발을 따라간다. 다른 방문객들과 사이좋은 공존을 위해 기본적인 ‘펫 에티켓’을 지킨다면 얼마든지 산책 길을 누빌 수 있다. 잔디밭이 넓적하게 펼쳐진 ‘오수의견공원’은 비좁은 집안에 갇혀 지내던 반려동물들에게 꿈같은 공간이다. 반려동물들은 소형견사와 중대형견사로 나누어진 애견놀이터(애견훈련장)를 마음껏 뛰놀 수 있다. 매년 4~5월에 열리는 의견 문화제와 곧 들어서는 ‘반려동물 지원센터’와 ‘세계 명견 테마파크’도 놓치지 말자.



## ‘시원하개’ 물바람 쐬는 옥평가든

물바늘 종종 반짝이는 옥정호가 발밑에서 넘실대는 ‘옥평가든’은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이다. 주인장도 손님들도 가까운 눈높이 아닌 따스한 미소로 반려견을 반긴다. 더욱이 탁 트인 야외 공간에 캠핑장 컨셉으로 꾸며져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곳에서, 야밤의 ‘불멍’(불을 바라보며 생각을 비우는 시간) 저리하라 하는 한낮의 ‘물멍’을 유유자적 즐겨보길 권한다. 늦봄의 따사로운 햇볕과 초여름의 푸릇푸릇한 신록이 몸을 쉴게 계절, 탁 트인 호수의 물결이 두 눈을 시원스레 물들이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물바람이 반려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사람과 동물이 얼굴을 마주보는 교감의 순간이 여기저기서 반짝이며 정다운 풍경을 완성한다. 반려견을 위한 고장 임실에서 행복한 추억을 한 아름 안고 돌아오는 길, 마음속은 넘치도록 풍족한데 발걸음은 솟털처럼 가볍다.

## 눈치보지 마시개 길 Check List

Shall we walk together?  
임실에서 같이 걸을래?



|                                                                                                          |                                                                                 |                                                                                                                                                                               |
|----------------------------------------------------------------------------------------------------------|---------------------------------------------------------------------------------|-------------------------------------------------------------------------------------------------------------------------------------------------------------------------------|
| <b>케로</b><br>여자아이 / 3세<br>시바견                                                                            | <b>한 번 뛰노는 시간</b><br>2시간<br>(간식 필수)                                             | 강아지 간식<br>목줄<br>배변 봉투<br>공<br>물                                                                                                                                               |
| <b>강아지와 함께하는 여행의 매력은</b><br>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맞이한 공간은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에게도 설렘을 안겨준다. 여행으로 깊이 교감하여 같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 |                                                                                 |                                                                                                                                                                               |
| <b>반려동물과 함께 지키는 에티켓</b><br>반려견 목줄 착용<br>배설물 수거<br>맹견 입마개 착용                                              | <b>유용한 앱</b><br>피리부는 강아지 : 주변에 있는 다른 강아지 흔적을 보고 친구를 찾을 수도, 유기견에게 사료를 기부할 수 있는 앱 | <b>Tip. 눈치보지 마시개 길</b><br>반려동물과 안심하고 걷는 길, ‘눈치보지 마시개 길’은 임실군과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등 6개 지역에 조성된 반려동물 동반 체류형 관광 코스이다. 인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입실이 가능한 숙소와 반려견에게 전면 개방하는 실내외 공간을 운영한다. |
| 옥평가든<br>전북도 임실군<br>운암면 국사봉로 10<br>☎ 0507-1388-6992                                                       | 오수의견관광지<br>전북 임실군 오수면<br>금암리 252-3<br>☎ 063-640-2941                            | 임실치즈테마파크<br>전북 임실군 성수면<br>도인2길 50<br>☎ 063-643-9540                                                                                                                           |

## 밝은 얼굴로 나누는 좋은 기운



칭찬 Challenge 이달의 주인공은  
1990년 예수병원에 입사해 간호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33년 차 박선자 수간호사님입니다.  
박선자 선생님께서는 시설관리과의 김종윤 선생님을  
칭찬 챌린지 대상으로 지목하여  
그동안 품고 있던 따뜻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박선자 선생님이 전한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 61병동 박선자 수간호사

#### 32년 전 간호대 졸업생에서 예수병원 통합병동 수간호사까지.

안녕하세요, 61병동 수간호사 박선자입니다. 1990년 간호대 졸업 후 바로 예수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주변에서 왜 서울로 가지 않냐는 질문에 '왜 제가 서울로 가야 하죠? 전 당연히 예수병원으로 갈 거예요.'라고 답했었는데 그게 벌써 32년이 지났네요.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15년 정도 근무했으며, 이후 외과 병동과 신장내과 병동, 가정의학과 외래, 건강의학센터 팀장, 심혈관센터 책임 간호사로 있다가 작년부터 통합병동 수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민희 과장님, 내일 회진 시간에도 웃는 모습으로 뵈요.

호흡기안심병동으로 지정된 병동에서 수간호사로 처음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전에 모르던 호흡기내과 과장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섯 분의 과장님 한 분 한 분 다들 자상하시고, 환자들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과장님들 인품이 다 좋으시고, 똑똑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하기까지 하시니 어찌 이런 진료과에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환자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회진 때 과장님들을 보면 밝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보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민희 과장님께서 지난 호 칭찬 챌린지 대상으로 저를 지목해 주셨다고 하셔서 그저 머리를 긁적이고 싶고 쑥스럽습니다. 저를 지목해 주신 이민희 과장님은 물론 전국의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서로서로 도우며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주시는 예수병원 호흡기내과 과장님들을 보면서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이민희 과장님,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아침 회진 시간에 건강하게 웃는 모습으로 뵈어요.

### 시설관리과 김종윤 선생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오래전 건강의학센터에서 근무할 때 김종윤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부터 다방면에 재주가 있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병원에서는 기송관\*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간호국 직원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종종 직원들의 부주의로 고장 나는 경우들이 있었었습니다. 이런 때 담당자인 김종윤 선생님은 실수한 직원이 무안하지 않도록 항상 잘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김종윤 선생님은 '화'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과는 병원 직원들이 고객인 곳이라 서로가 일로 짜증이 나다 보면 작은 말투에서조차 기분이 상하기 쉬운 곳인데 김종윤 선생님의 성품이 너무 착하셔서 화내시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윤 선생님은 매번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김종윤 선생님, 과중한 업무로 지치실 때도 있으실 텐데 티 한 번 내지 않으시고 항상 밝은 얼굴로 좋은 기운을 나눠 주셔서 감사드려요.

\*기송관 | 지름 4~8cm의 관 속에 서류를 넣고 공기를 주입하면서 압력을 가하여 공기의 흐름에 의해 서류 등을 운반하는 장치.



66  
김종윤 선생님,  
힘든 시설관리과 일에서  
건강 잘 챙기셔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밝은 얼굴로  
좋은 기운 나눠주길  
바랄게요.  
99

#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갑작스런 재난에도, 폭력적인 강압에도, 좌절하지 않고  
맞설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행의 싹을 틔워낸 로이드 보그스,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 지역민과의 동행

복음의 전도자, **로이드 보그스**  
(Dr. Lloyd Kennedy Boggs, 1897~1953)

### 로이드 보그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소리

1925년, 로이드 보그스가 그의 부인인 마가렛 보그스와 함께 조선으로 와 예수병원의 여섯 번째 병원장으로 부임하였다. 부임 초반의 보그스는 촉박한 시간으로 우리말을 익히지 못한 고충이 있었다. 그러나 친절함을 잃지 않았고, 특히 아이들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사로서 소명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며 1925년, 한 해에만 600여 명의 입원 환자와 6,000여 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하였다. 보그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성경의 구절을 자주 외우고 다녀 ‘요한복음 3장 16절 원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를 세상에 보여준 이야기가 담긴 구절로, 보그스는 이 구절을 외우며 지역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렸다. 그의 진심은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부임 첫 해에 724명이 신앙을 가지는 결실을 보았다. 1940년,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저항을 차단하고, 일제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그중 하나인 신사참배를 위해 유일하게 선교 기관으로 존속하던 병원에 신사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지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예수병원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로이드 보그스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결국 예수병원은 일제의 강압으로 8년 동안 문을 닫게 되었다.

### 로이드 보그스의 목격자, 마가렛 보그스

1924년, 마가렛 보그스와 로이드 보그스는 조선으로 가는 선교사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조선으로 출발하기 얼마 전에 결혼하였다. 마가렛 보그스는 로이드 보그스 원장과 전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동안 보고서를 작성했고, 남편의 진료 업무를 지원했다. 로이드 보그스를 돕는 와중에도 조선의 부녀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봉반을 운영하며 직업교육을 시작했다. 또한, 신사 설치 명령에 맞선 로이드 보그스에 힘을 실어주었고, 조선의 신사참배 반대를 목격하여 당시의 상황을 편지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 젯더미에서 피어난 동행의 싹

춡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던 1935년 1월, 예기치 못한 화재가 예수병원을 덮쳤다. 삼시간에 번져가는 화재에 사람들은 대피에 급급했으나, 난리 중에도 캐슬러 간호사는 병원의 환자들을 대피시키며 인명 피해를 막아내었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었지만 예수병원의 건물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일제 치하인

당시에는 일본인이거나 부자들만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로이드 보그스를 비롯한 예수병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민들을 보듬었고, 이에 보답하러 지역민들이 나선 것이다. 수많은 이들의 모금과 도움으로 1936년에 병원을 재건하였고, 현재까지도 엠마오사랑병원의 건물로 사용되며 동행의 결실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 키워드로 보는 로이드 보그스

6대



예수병원  
6대 병원장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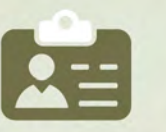
보그스가  
즐거 외우던 성경의  
요한복음 구절

결신자



보그스의 진심에  
감동한 많은 사람이  
신앙을 결심했다.

박수로



로이드 보그스의  
한글 이름

1925년



보그스가  
예수병원에  
부임한 해

재건



화재로 건물이 소실  
되었으나 지역민의  
도움으로 재건했다.

최근 예수병원의 모든 부서의 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전산정보과가 확장 개소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의료팀과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료팀이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환자들이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전산정보과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라는 것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될까? 예수병원의 모든 전산을 관리하고 시스템 유지, 보수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산정보과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차세대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다

### 전산정보과

#### 예수병원의 허브

전산정보과는 의료 행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처리하는 부서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와 대면해 그에 맞는 치료를 한다면 전산정보과는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료화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산정보과의 중요성은 실로 놀랍다. 병원에 들어섬과 동시에 우리는 전산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센서가 차 번호를 감지하면 주차장 전산에 입력된다. 그런 다음 병원에 들어와 접수를 한다. 이때 입력된 나의 모든 정보 덕분에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료가 끝난 다음에는 전산의 간편화로 빠른 수납과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무심코 지나쳤던 그 모든 행위들이 고도화된 전산 덕분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다. 병원을 들어가고 나가는 순간까지 전산망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전산정보과는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와 또 다른 이유로 병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전산정보과는 초기에 3명의 직원이 업무를 도맡아 했으나 지금은 17명의 프로그래머와 간사 1인으로 구성되어 더 세분되고 전문화된 전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부서는 개발팀, 운영팀, 정보보안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진료, 진료 지원, 간호, 의무 기록, 일반 관리, 검진, 원무, 보험, 모바일 통신, 각종 H/W를 담당하고 있다. 병원의 모든 부서는 전산정보과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타 부서와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전산정보과는 서비스 정신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전산정보과는 우리 병원 모든 직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돕는 내부 고객 만족 부서다. 개발팀, 운영팀, 정보보안팀으로 나뉘어져 오늘도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매달린다.





## 예수병원, 전산정보과와 나란히 길을 걷다

전산정보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생산보다는 소비하는 부서다. 소비라는 것은 다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다. 병원의 장기적인 수익을 위해 다양한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소비다. 다른 의미로는 다른 병원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투자다. 전산정보과의 투자는 곧 예수병원 전 부서의 생산과 직결된다. 병원 내에서는 전산정보과를 내부 고객 만족 부서라고 한다.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부서와 직업군에게 최고의 만족을 준다는 의미다.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이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산정보과는 모든 부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 부서와 부서 간에 생길 수 있는 업무 관련 문제점도 전산정보과가 나서서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모든 부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다. 전산정보과가 타 부서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산정보과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각각의 악기가 지휘자의 손놀림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듯 전산정보과의 조율로 인해 예수병원 각 부서가 한목소리를 내고 한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예수병원과 각 부서 간의 동행은 전산정보과가 만든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를 이어주고 있다.

예수병원의 여러 부서가 전산정보과와 함께하는 그 길은 생명의 꽃을 피우는 길이다. 아름드리나무부터 시작해 작고 어린 들꽃까지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며 한마음으로 걷는 그 길 위에서 예수병원은 타 병원이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시스템으로 무장해 환자에게 건강과 희망을 선물할 것이다.

## 전산정보과의 역사를 되짚다

초기의 전산실은 직원이 3명으로, 차관으로 들여온 Dummy terminal 용 서버 한 대와 라인프린터 2대로 원무 수납 처리와 보험 청구를 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총 18명의 직원이 병원의 모든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병원의 꾸준한 관심과 투자 덕분이다. 올해 2월에 예수병원은 삼성 SDS와 차세대 통합 의료 정보(EMR)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이는 기존 병원 정보 시스템(HIS) 교체와 사용자 중심 UI(User interface)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수정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고도화 작업을 이끌려는 계획이다. 보건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ICT융합기술, 바이오융합 신기술 등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 발 빠른 대처다. 예수병원의 이런 노력이 지방 종합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수도권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최근 확장 개소로 새롭게 변화된 전산정보과는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각 파트별로 필요한 업무 환경과 파트 간 업무 공유와 시스템 관리가 전산정보과 사무실에 모두 집약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관보다 실속이다. 전산정보과 박양서 과장은 업무의 능률은 장비도 중요하지만 직원 간의 화합과 소통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도 직원들과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개개인이 가진 고충을 들어 주기 위해 애쓴다. 같은 시공간을 달리고 있는 것만큼 특별한 인연은 없기 때문이다.

1 | 2

**1** — 전산정보과는 박양서 과장을 필두로 팀을 구분하지 않고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푼다.

**2** — 우리 병원과 30년을 함께한 박양서 과장은 예수병원의 산증인이다. 그의 손을 거친 수많은 숫자와 데이터의 힘이 우리 병원의 성장 동력이다.

66

전산정보과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각 부서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여기니까요.

99

### Mini Interview

개발팀  
곽현 팀장

"업무상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해야 하므로 팀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짧게라도 티타임을 가지며, 여가 시간을 이용해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팀  
유진희 팀장

"전산정보과에서 16년 근무 중입니다. 전산 업무는 저를 항상 가슴 뛰게 합니다. 매번 바뀌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 발전과 연결된다는 생각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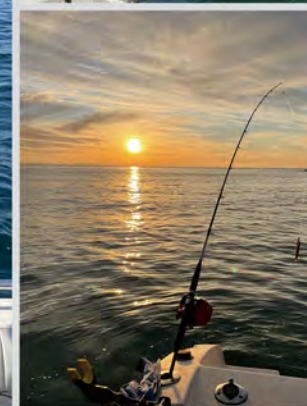
정보보안팀  
김영애 담당

"처음 근무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직원도 많고 업무가 세분되어 근무 환경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원 간 갈등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어복을 지닌 '용왕의 딸'이라 불러주세요.

소아물리치료실 조하은 물리치료사

바쁜 일상을 뒤로한 채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의 배를 한 척 띄워봅니다. 낚싯대를 드리우고 만끽하는 시간 속  
짜릿한 손맛, 생동감 넘치는 눈맛, 차오르는 입맛까지.  
인생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낚시를 위해 오늘도 만선의 꿈을 품어봅니다.



## Fishing Tip — 낚시 팁

낚시는 장비나 어종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그중 기본적인 구분법이 '민물낚시'와 '바다낚시'입니다. 어종과 미끼를 갈아주는 시기 등의 차이가 있지만 강이나 호수에서 흐르는 물 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기고픈 이에게는 민물낚시를, 광활한 바다 위나 갯바위에서 활동적인 낚시를 즐기고픈 이에게는 바다낚시를 추천해 드려요.

## 물고기 낚는 소녀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가족 여행에 낚싯대를 챙겨 갔습니다. 처음 낚싯대를 잡았던 날은 기억나지 않지만, 군산 방파제에서 망둑어 낚시를 했던 기억은 어렴풋이 납니다. 당시 경험이 많지 않던 어린 제게 소위 '어복(魚福)'이 있었는지 낚싯대를 던지면 계속해서 물고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날의 기쁨과 바람을 맞으며 먹었던 망둑어의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좋은 기억들이 이어져 지금도 종종 낚시하러 다니곤 합니다. 최근에는 친구와 군산으로 전통 횡을 이용한 우럭 배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군산항에 도착해 배를 타고 떠나면 바다로 나아가자 어느새 육지는 보이지 않고 드넓은 바다와 떠오르는 태양이 배에 탄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적한 자연은 정취와 손맛이라는 미끼를 던진 것이고 전 고것을 확 물어버린 것처럼 계속해서 낚시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 오늘도 만선의 꿈을 향해

흔히들 낚시는 손맛에 한다고 말합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를 '입질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때 손에 느껴지는 생명의 감각과 물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의 쾌감을 잊지 못해 낚싯대를 다시 잡고는 하죠. 오랜 기다림 끝에 입질이 와서 낚싯대를 올려보면 큰 물고기가 저를 반겨줄 때도 있지만 큰 돌에 낚싯줄이 걸리거나 옆 사람과 낚싯줄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낚시를 하며 이런 예기치 않은 순간들로 인해 당황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 낚시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겨내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 문제를 헤쳐 나가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우리의 인생 말입니다. 인생을 향한 도전도, 만선의 꿈을 향한 도전도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낚싯줄 하나로 연결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몸 안 가득 자연을 들이쉬어 봐요.

# 신록으로 다가온 여름의 마중 토마토

※ 저문 : 예수병원 가정의학과 이진희 과장

신록의 푸른빛이 곳곳에서 발하는 계절, 한층 더해진 별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풀어져 있을 때면 산뜻한 붉은색과 달콤새콤한 맛의 토마토가 떠오릅니다. 짙은 녹색의 초록빛 끝에서 맺은 새 빨간 열매는 한낮의 열기를 머금은 듯합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베타카로틴과 함께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면역력은 사시사철 언제나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지만, 코로나19가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과 한결 더워진 날씨로 인해 기온이 빠지기 쉬운 오늘날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은 황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베타카로틴은 체내 해독 작용과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송송 썰어낸 토마토 위에 설탕을 뿌려 국물까지 들이키는 추억 녹인 토마토도 좋지만, 지용성인 라이코펜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기름에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껍질째 조리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무궁무진한 매력을 지닌 토마토로 다가올 여름을 맞이해 보세요.



면역력 담백 담긴 한 숟갈  
토마토 야채 수프

## INGREDIENTS

토마토, 양파, 양배추, 양송이버섯, 브로콜리, 파프리카, 치킨파우더, 케첩, 물, 소금, 후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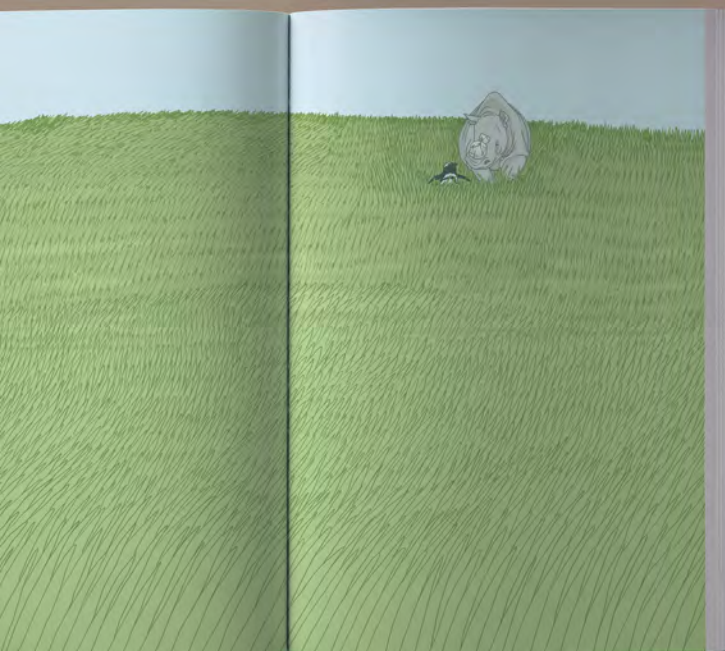
## RECIPE

- 1 채소를 적당한 크기로 깍둑 썰어줍니다.
- 2 식용유를 두른 냄비에 양파를 먼저 볶다가 토마토를 넣고 볶습니다.
- 3 중불에 10분 정도 끓이다가 물과 소금을 넣고 한소끔 더 끓입니다.
- 4 끓은 냄비에 손질한 채소를 넣고 중불에서 20분 정도 끓입니다.
- 5 치킨파우더, 소금, 케첩, 후추 등 양념을 넣습니다.
- 6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10분 정도 더 끓입니다.

# 함께 걷는 길에 고른 봄별을 내어주는 결사람



© 민화앤북



‘함께’라는 두 음절이 주는 온기가 있다. 맞잡은 손이 있기에, 기댈 어깨가 있기에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다. 이번 호의 주제인 동행의 의미를 되새겨볼 영화 〈미나리〉와 그림책 〈긴긴밤〉, 두 작품을 통해 따사로운 봄별 같은 결사람을 떠올려 본다.

##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의 연대 긴긴밤

지난여름 낫선 여행지에서 들어선 책방에서 이 그림책을 발견했다. 따뜻한 그림체와 한 손에 쥐어 잡히는 책의 두께가 여행 중간중간에 읽기 제격이라 생각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었던 처음과 달리 연이은 그림으로 책장을 다 넘겼을 땐 무거운 눈물을 흘렸다.

지구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수컷 북부원코뿔소였던 ‘수단’에서 시작된 이야기인 〈긴긴밤〉은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란 코뿔소 ‘노든’과 코뿔소 품에서 태어난 이름 없는 어린 펭귄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연대를 다루고 있다. 어린 펭귄이 코뿔소 ‘노든’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긴긴밤〉은 홀로 나선 길에서 둘, 셋 그리고 다시 혼자서 나아가는 우리의 연대와 긴긴밤의 기록을 담고 있다.

〈긴긴밤〉은 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을 받으며, 출간 1년 만에 약 18만 부의 책이 독자들에게 다가갔다. 책에서는 종을 뛰어넘은 동물들 간의 아름답고 위대한 연대를 보여준다. ‘다름’을 의식하거나 구분 짓지 않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곁에서 함께하는 동물들의 모습에서 무지의 차별을 일삼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한다. 고아원의 코끼리로부터 코뿔소에게, 코뿔소 노든으로부터 어린 펭귄에게 전해진 보살핌을, 바투 다가선 마음을 독자들들도 느끼고 나누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훌륭한 코끼리는 후회를 많이 하지. 덕분에 다음 날은 전날보다 더 나은 코끼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노든과 어린 펭귄이 전한 이야기를 통한 오늘의 후회가, 돌이켜 본 시간이 독자들에게 더 나은 ‘함께’가 되길 바라본다.



© 페이스북

## 낫선 땅에 뿌리내린 희망 미나리

1세대 이민 가족, 아빠 ‘제이콥’은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고, 엄마 ‘모니카’도 일자리를 찾는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모니카의 요청에 할머니 ‘순자’가 제이콥 가족이 있는 곳에 도착한다. 의젓한 큰딸 ‘앤’과 장난꾸러기 막내아들 ‘테이벳’은 할머니가 영 못마땅하다.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 영화 〈미나리〉이다.

〈미나리〉는 이민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다는 평을 받으며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등 각종 시상식에서 화려한 수상을 알렸다.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인 내용을 담은 〈미나리〉는 1980년대 1세대 이민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낫선 땅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더라도 서로의 꿈을 지지해 주

고, 위기가 닥친 순간에 서로를 먼저 생각하며, 실수를 감싸주고 함께 성장하면서 더 나은 동행을 향해 손을 내민다. 새로운 환경, 불편한 시선, 꿈과 현실의 괴리, 심장병을 앓는 테이벳까지. 곳곳에 있는 어려움에도 버티고 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함께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산재해 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언제나 험겨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가능한 것은 함께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잠잠히 이야기해 주는 영화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는 미나리처럼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어디든 뿌리내릴 수 있다는 오래되고 따뜻한 진리를 일깨워 준다.

## 예수병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새 걸음

예수병원과 함께하며 성장을 만들어 내는 이들이 있다.  
생기 넘치는 목소리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묻어있다.  
차곡차곡 밟아 나아가며 걸어갈 새 걸음을 살펴보자.

66  
질문하는 용기를 가진 프로 질문러  
김서현입니다.

99

해외병원사업부 김서현

...

예수병원 설립자인 마티 잉골드의 정신을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해외병원사업부 소속으로 일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종합병원 설립을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게 예수병원은 아름답고 포근한 이미지예요. 오래된 건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꾸는 것과 겨울 즈음 화려하게 꾸며진 전경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입사 전에 방문했을 때 직원분들의 친절함에 따뜻한 인상도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병원의 일원이 된 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병원의 비전과 미션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있게 이해해서 업무에 적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야를 넓혀가면서 더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66  
이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손예랑입니다.

99

핵의학과 손예랑

...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혈액을 진단·치료하는 핵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핵의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수병원은 제가 태어난 곳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내적 친밀감이 있었어요. 입사 이후 느낀 건 기독교 병원이라 가치관이 잘 맞고, 선배님들과 그 가치관으로 끈끈하게 묶인 기분이 들어 따뜻했어요.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고요. 핵의학과는 꼼꼼한 검체 분류와 섬세한 검사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사히 검사를 마쳤을 때 보람을 많이 느껴요. 아직 실수도, 모르는 것도 많은데 더 공부하고 발전해서 정확한 검사를 하는 임상병리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66  
전해들, 이슬처럼  
1년 내내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99

기획재정과 전해들

...

공공 기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맡는 기획재정과 공공의료팀에 속해있습니다. 대학 수업을 들을 당시에 교수님께서 예수병원에 입사한 분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병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첫 직장이다 보니 첫 출근 때 굉장히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긴장이 무색하게 다들 친절하시고, 따뜻하게 잘 돌봐주셨어요. 그 따뜻함에 부응하고자 최대한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병원에서 목표가 있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병원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나태해지지 않고 예수병원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처음처럼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 병원 이상이 되기를,  
가시는 장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평안을 얻게 되기를



## 01 예수병원 · 전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의료협력 '맞손'

우리 병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주보훈요양원 개원준비단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계약 의사 파견', '건강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진료 의뢰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의료 정보 제공' 등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 기관이다. 전국에 6개 보훈병원과 7개 보훈요양원 등의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02 예수병원, 의료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재)예수병원 유지재단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2 의료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협약 기관으로 선정돼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지원받는다. 우리 병원은 캄보디아 종합병원 설립 준비 중 보건복지부 주관, 진흥원 시행의 의료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해외 진출 중대형 프로젝트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이어 나간다.

## 03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맞춤 보조기기 지원사업 선정

우리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가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진행의 맞춤 보조기기 지원사업 협력 기관에 선정됐다. 전라북도의 장애인과 노인에게 3D 프린터 및 신소재를 활용한 맞춤 개조 서비스 제공, 3D 보조기기 공공 플랫폼 설계도 및 지원 사례 공유 등을 진행한다.



## 04 홍보실 리뉴얼 기념식

예수병원장 직속 홍보실이 새로운 모습으로 확장해 지난 3월 준공된 전주기독교대역사기념관 2층으로 이전하였다. 우리 병원 홍보실은 PR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기존의 여타 병원 매거진과는 차별화된 '얼럿먼트(Allotment)' 건강 매거진 발행과 PMC(Presbyterian Medical Center) 홍보 인쇄물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PR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병원 공간과 환경 디자인을 기획하여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병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6월에 개관할 예정인 '구바울기념 의학박물관'을 활용하여 우리 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헤리티지를 활용함으로써 문화 홍보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송승현 실장(홍보실장 겸임 내부 감사)은 "전라북도

미래 의료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예수병원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균형적 시각과 소통의 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어 병원의 더 나은 격과 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올해는 전주기독교대역사기념관의 준공과 기존 의학 박

물관의 이전으로 홍보실이 해당 현장에서 기념관과 박물관 구축을 위한 발판인 교두보 역할을 맡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우리 병원 홍보실의 계획을 밝혔다.



## 05 전산정보과 확장 개소식

우리 병원은 첨단 ICT를 활용하여 '미래지향적 스마트병원'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담당할 전산정보과를 확장 개소하였다. 전산정보과는 지난 2월 병원 정보 시스템 솔루션 선두 기업인 삼성 SDS와 차세대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 체결 이후 기존 병원 정보 시스템 교체와 사용자 중심 UI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면 수정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고도화 작업을 이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ICT 융합기술, 바이오 융합 신기술 등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시점에 발 빠른 대처다. 박양서 전산정보과장은 "보



건의료계에 부는 디지털 전환의 바람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하여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이끌어 내며 우리 병원을 '미래지향적 스마트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올해 도입 예정인 차세대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전산정보과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이며 포부를 밝혔다.

## 06 전북교총-전주예수병원 업무 협약 체결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와 우리 병원은 지난 4월 20일 전북교총 회원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회원과 가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할인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기중 회장은 “교육력 증진과 교육 가족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의료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07 TS Imaging USA Inc 글로벌 헬스케어 발전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병원은 4월 21일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IDG 캐피탈의 자회사 TS Imaging USA Inc.(회장 토니 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 소개 및 역할 그리고 뇌 질환(7T MRI 활용) 검진 치료 등 6가지 사업 분야를 설명하며 국내 사업 진행 및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약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뇌 질환 및 특수 질환 검진·치료, 일반의료검진(PET-MRI 활용), 산학 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 의학 기술 정보 및 학술 교류 등 각 분야에서 해당 의학 기술 및 정보 교류와 사업 동반 글로벌 진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08 예수병원 EMBA 과정 제2기 수료식

우리 병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직면한 의료 산업의 새로운 지평과 병원의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2기 EMBA 과정을 개설했으며,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4월 21일 밝혔다. 예수병원 EMBA 과정은 재무, 회계, 인사 조직, 조직 관리, 마케팅 등의 병원 경영에 관련된 리더십 및 자질을 높여 관리자로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가 가져온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마련됐다. 이번 제2기 EMBA 수료식은 신청자 53명 중 전원 100% 수료율을 기록하여 1기 수료자 49명을 포함한 우리 병원 직원 100여 명이 EMBA 과정을 이수하였다. 김철



승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병원 조직이 당면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여 의료 시스템의 레질리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와 끊임없는 교육으로 병원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이제는 100여 명의 수료생이 상호 협력으로 더 나은 선진 의료 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자.”라고 말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우리 병원의 모습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 09 예수병원 - 전주병원 협약식

우리 병원과 전주병원이 협력적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김철승 예수병원장, 전주병원 김중준 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1일에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학 정보 및

직원 교육 정보 교류’, ‘의료 기술 자문 및 견학’, ‘상호 환자 의뢰 및 검사 의뢰’, ‘긴급 상황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 연구, 진료, 봉사 등에 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보건의료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의료의 질을 향상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것에 기대가 된다.



## 10 예수병원,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의료 지원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JIFF) 기간 동안 우리 병원 의료진 안전부스를 설치하여 영화제 관계자 및 방문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했다. 우리 병원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행사장에 전담 의료팀과 전용 구급차를 지원하여 영화제 기간 동안 건강 상담과 구급약 제공,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본원으로 후송하는 체제 등을 지원했다.

## 11 전주중부교회 예수병원 발전 기금 2천만 원 후원

전주중부교회(박종숙 담임목사)가 우리 병원 발전을 기원하며 후원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지난 5월 4일 밝혔다. 전주중부교회는 2007년부터 매년 발전 기금을 후원해 지금까지 9천 5백만 원을 전달했으며, 김동건 원로목사는 “예수병원의 울타리가 되자.”는 취지로 ‘예수병원선교후원회’를 조직해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 기부와 후원으로 희망이 다가옵니다

기부와 후원이 우리 이웃과 지역 공동체에 희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병원이 펼쳐온 사회공헌활동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신 분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자세한 기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66

발전 기금 전달을 통해  
제 인생의 첫 번째 숙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99

평소에 인생의 숙제를 몇 가지 품고 있었어요. 그중의 하나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고, 외과 의사로서의 소명을 깨닫게 해준 예수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최소한의 성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생의 첫 번째 숙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예수병원은 제게 외과 의사로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룬 곳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예수병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전 선교사의 도움으로 예수병원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해외에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치고, 지역민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지속하길 바랍니다.

대전송도외과  
원장 유정준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우리 병원을 위해 소중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예수병원이 내일을 꿈꿉니다.

###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돼요.



**진료 환경 개선**  
진찰실, 병실 등  
리모델링



**교육 환경 개선**  
세미나실,  
최신 교육 기자재 도입



**연구 기금**  
기독교학연구원 연구비,  
각종 암과 난치성 질환 연구



**불우 환자 지원**  
저소득층 진료,  
외국인 노동자 진료 등



**예수병원 박물관 운영비**  
세미나실,  
최신 교육 기자재 도입



**기타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국민건강  
및 복리에 기여, 의료 선교 등

### 생일 감사의 후원 어떨까요?

1965년 미국 남장로교회 부인회가 생일감사 헌금을 예수병원에 헌납하여 당시 '용머리 고개의 기적'이라 불린 호남 최대의 예수병원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병원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1년에 한 번 자신의 생일에 예수병원 '생일감사 후원'으로 기쁜 날에 의미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일감사 후원 계좌번호 <신협 131-003-861449, 예금주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재)예수병원에 발전 기금을 기부하시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하여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재정부 공익성기부금단체지정 2007.9.28.)

### 후원 참여는 이렇게 해주세요.

**후원 형태** |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귀중품, 기자재, 로열티 등 모든 물품과 자산이 가능합니다.

**후원 방법** |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체, 무통장 입금, 지로, ARS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 기금** | 예금주 :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10-23-0317364 농협 658-01-031404

국민은행 751901-01-465000 신협 07063-12-004188

기업은행 304-020172-01-309 기업은행 304-020172-01-309(주차동 모금 계좌)

후원 방법에 관해 본원 발전 기금 담당(063-230-8028)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예수병원 진료 일정 안내

| 진료과                | 전문의 | 전문 진료 분야                                        | 오전         | 오후         |
|--------------------|-----|-------------------------------------------------|------------|------------|
| 가정의학과<br>230-1510  | 조종환 | 노인의학, 성인병, 임검진, 금연                              | 월, 수, 목    | 월, 목       |
|                    | 이진희 | 성인병, 건강증진, 영양치료, 비만관리, 금연                       | 화, 수       | 화, 수       |
|                    | 이재성 | 성인병, 임검진, 건강증진, 영양치료, 금연                        | 월, 화, 금    | 월, 금       |
|                    | 최미림 |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 월-금        | 월-금        |
|                    | 김후철 | 치과, 건강검진                                        | 월-금        | 월-금        |
|                    | 오종은 | 건강검진                                            | 월-금        | 월-금        |
| 내분비내과<br>230-1300  | 송선경 |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내분비질환                         | 월, 수, 목, 금 | 월, 수       |
|                    | 김지혜 | 당뇨병, 갑상선질환, 뇌하수체 질환, 골다사질환, 부신 질환, 내분비질환        | 월, 화, 목, 금 | 화, 목       |
|                    | 백초옥 |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사질환, 부신 질환, 뇌하수체 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 월, 수, 목    | 월, 화, 금    |
|                    | 김선희 |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사질환, 부신 질환, 뇌하수체 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 화, 수, 금    | 수, 목, 금    |
| 류마티스내과<br>230-1300 | 홍영주 | 관절염, 통풍, 루푸스, 근섬유질환, 결체조직질환                     | 월, 화, 목    | 월, 수, 금    |
| 소화기내과<br>230-1300  | 조진웅 |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 월, 화, 목    | -          |
|                    | 조용근 | 간, 위장관질환                                        | 월, 목, 금    | -          |
|                    | 김지웅 | 간, 담도, hepatobiliary, 위장관질환                     | 화, 수, 금    | -          |
|                    | 장금모 | 간, 위장관질환                                        | 월, 수       | 목          |
|                    | 양민아 |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 화, 금       | -          |
|                    | 김병선 |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 월, 수, 목    | -          |
|                    | 송재선 |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 화          | 월, 금       |
|                    | 이원동 |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 수          | 금          |
|                    | 양성열 |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 금          | 화          |
|                    | 허대혁 |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 -          | 월          |
|                    | 허현  |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 -          | 화, 수       |
|                    | 조봉주 |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 -          | 월, 수       |
|                    | 이순관 |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 -          | 화, 목       |
|                    | 류재영 | 심장,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 월, 화, 목, 금 | -          |
| 순환기내과<br>230-1350  | 전성희 |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성인선전성 심질환         | 수, 금       | 수, 금       |
|                    | 박종필 |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말초동맥질환/시술         | 월, 화       | 목, 금       |
|                    | 송지은 |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 수, 목       | 월, 수       |
|                    | 오성식 |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관상동맥중재술, 심부전, 부정맥           | 월, 화, 목    | 화          |
|                    | 박선민 |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 금          | 화, 목       |
|                    | 김다혜 |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 -          | 월          |
|                    | 이지하 |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 수          | -          |
|                    | 김선화 |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심신, 인공심박동기, 제세동기, 전극도자절제술       | 수, 금       | 수, 금       |
| 신장내과<br>230-1300   | 이광영 |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 월, 수, 목    | 월, 수       |
|                    | 성인오 |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 월, 화, 목, 금 | 목          |
|                    | 조아영 |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 수, 금       | 화, 수, 목, 금 |
|                    | 오주환 |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 화          | 월, 화, 금    |
| 혈액종양내과<br>230-1300 | 박효숙 | 혈액, 혈액 / 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 화, 수, 금    | 월, 목       |

| 진료과                              |                | 전문의                                             | 전문 진료 분야        | 오전         | 오후      |
|----------------------------------|----------------|-------------------------------------------------|-----------------|------------|---------|
| 내과<br>호흡기·알레르기<br>내과<br>230-1360 | 곽진영            | 폐암 및 폐종양, 폐결절,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 월, 수, 목         | 월, 수       |         |
|                                  | 이중철            | 중환자의학,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 화, 금            | 월, 화, 금    |         |
|                                  | 최경화            |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알레르기질환, 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증), 호흡기감염질환    | 월, 화, 목         | 화, 목       |         |
|                                  | 이민희            |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 질환, 폐결절, 특수기관지 내시경      | 화, 수, 금         | 화          |         |
|                                  | 양현주            |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알레르기질환               | 월, 목            | 수, 목       |         |
|                                  | 김병관            |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만성기침                 | 금               | 수, 금       |         |
| 마취통증의학과<br>230-1580              | 권영은            |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 목               | 목          |         |
|                                  | 김유일            |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 월, 수            | 월, 수       |         |
|                                  | 이지혜            |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 화               | 화          |         |
|                                  | 오지운            | 부인마취, 정형외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 월~금             | 월~금        |         |
|                                  | 여현주            | 부위마취, 산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 월~금             | 월~금        |         |
|                                  | 정종달            | 노인마취, 정맥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 월~금             | 월~금        |         |
| 방사선종양학과<br>230-1520              | 이희관            |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식도, 간, 위, 대장, 직장), 비뇨기암(방광, 전립선) | 월, 화, 수, 금      | 화, 목       |         |
|                                  | 박혜리            | 유방암, 자궁암, 임파종                                   | 월, 화, 금         | 수, 목       |         |
| 병리과<br>230-8190                  | 이광민            | 조직병리, 세포병리, 분자병리                                | 월~금             | 월~금        |         |
|                                  | 주명진            | 조직병리, 세포병리, 면역병리                                | 월~금             | 월~금        |         |
|                                  | 유상봉            | 패병리                                             | 월~금             | 월~금        |         |
|                                  | 안지현            | 소화기병리, 혈액종양병리                                   | 월~금             | 월~금        |         |
| 비뇨의학과<br>230-1440                | 천만우            | 남성비뇨, 요로결석,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 화, 수, 금         | 화, 수       |         |
|                                  | 이강식            | 여성비뇨, 소아비뇨,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 월, 목            | 월, 목, 금    |         |
| 소아청소년과<br>230-1390               | 박강서            | 소아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아토피, 알레르기검사                      | 월, 화, 금         | 화, 목       |         |
|                                  | 정영택            | 소아신경질환, 간질, 발달장애, 감염                            | 월, 화, 수, 금      | 화, 금       |         |
|                                  | 박신애            | 소아심장질환(심장초음파), 성조숙증, 자선장, 내분비질환                 | 월, 목            | 수, 금       |         |
|                                  | 김미경            | 소아위장관, 간질환, 변비, 비만, 영양, 혈액질환                    | 수, 목            | 월, 수, 목, 금 |         |
|                                  | 호요한            |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질환, 선천성 대사장애                        | 수               | 월          |         |
|                                  | 박신희            | 신생아, 신장, 내분비질환                                  | 화, 목            | 화, 수       |         |
|                                  | 임선웅            | 신생아응급                                           | -               | -          |         |
|                                  | 최종림            | 소아응급                                            |                 | 평일 야간, 주말  |         |
|                                  | 김경녕            | 소아응급                                            |                 | 평일 야간, 주말  |         |
|                                  | 강동구            | 안면거상, 백태상형, 눈·코 성형, 지방이식흡입, 재건외상                | 월, 수            | 월, 수, 금    |         |
| 신경과<br>230-1570                  | 허연수            |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두통                             | 월, 목, 금         | 월, 화       |         |
|                                  | 신현준            | 어지럼증, 디발성경화증, 신경면역질환                            | 화, 수            | 수, 목, 금    |         |
|                                  | 정병민            | 두통, 파킨슨병, 뇌전증                                   | 화, 수, 목         | 월, 수, 금    |         |
|                                  | 장혁수            | 치매, 파킨슨병, 말초신경염 질환, 어지럼증                        | 월, 화, 수, 금      | 목, 금       |         |
| 신경외과<br>230-1420                 | 허승곤            |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수술                                 | 월               | 수          |         |
|                                  | 신동규            | 척추, 신경통증, 외상                                    | 월, 수            | 월          |         |
|                                  | 공태식            | 뇌혈관질환, 뇌졸중, 혈관 내 수술                             | 월, 목            | 목          |         |
|                                  | 최은식            |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수술 및 비수술 치료, 척추 외상                | 수, 금            | 수, 금       |         |
|                                  | 김효준            | 뇌졸중, 뇌종양, 퇴행성 질환, 간질, 외상                        | 수               | 월, 수       |         |
|                                  | 신우람            |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 화, 목            | 화, 목       |         |
|                                  | 박민             | 뇌혈관질환, 뇌졸중, 외상, 혈관 내 수술                         | 화, 금            | 화, 금       |         |
|                                  | 노시현            | 뇌혈관수술, 뇌종양, 뇌졸중, 외상, 기타 뇌질환                     | 목               | 월, 목       |         |
|                                  | 안과<br>230-1450 | 고명규                                             | 녹내장, 망막, 각막, 사시 | 월, 목, 금    | 월, 화    |
|                                  |                | 김근영                                             | 성형안과, 백내장, 녹내장  | 화, 수       | 수, 목, 금 |

대표전화 1899-1843 / 230-8114 / 080-077-7575    응급센터 230-8282    진료협력센터 230-8989

※ 진료 일정은 2022년 5월 기준이며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진료 전에 전화 확인 바랍니다.

| 진료과                  | 전문의 | 전문 진료 분야                                    | 오전         | 오후      |
|----------------------|-----|---------------------------------------------|------------|---------|
| 여성의학센터<br>230-1500   | 김경진 | 부인과종양,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 월, 수       | 월, 수, 금 |
|                      | 김경아 | 고위험산과, 복강경수술, 폐경기장애                         | 월, 목       | 월, 목    |
|                      | 홍상기 | 고위험산과,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 수, 금       | 화, 금    |
|                      | 문정범 | 난임, 시험관아기시술, 일반산과, 일반부인과, 내시경수술             | 수, 금       | 수, 금    |
|                      | 정태원 |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 화, 목       | 화, 목    |
|                      | 유은애 | 보신경, 두경부, 척추                                | 월-금        | 월-금     |
| 영상의학과<br>230-8380    | 김수정 | 보신경, 두경부, 척추                                | 월-금        | 월-금     |
|                      | 이미숙 | 흉부                                          | 월-금        | 월-금     |
|                      | 송인성 | 근골격, 척추                                     | 월-금        | 월-금     |
|                      | 김윤환 | 인터벤션                                        | 월, 화, 수, 목 | 월, 화, 수 |
|                      | 강동민 | 복부, 비뇨생식기                                   | 월-금        | 월-금     |
|                      | 김상현 | 복부, 비뇨생식기                                   | 월-금        | 월-금     |
|                      | 정수연 | 흉부·심혈관계                                     | 월-금        | 월-금     |
|                      | 노경희 | 유방                                          | 월-금        | 월-금     |
|                      | 오지수 | 근골격                                         | 월-금        | 월-금     |
|                      | 김은영 | 외과응급                                        | -          | -       |
| 일반외과<br>230-1400     | 강초희 | 유방·갑상선, 일반외과                                | 금          | 수, 목    |
|                      | 문재영 | 소화기 질환, 일반외과                                | 목          | 목, 금    |
| 간담체외과<br>230-1400    | 김우영 | 간, 담도, hepatobiliary, 담장, 복강경               | 화, 금       | 화, 금    |
|                      | 김주섭 | 장기이식(간), 간, 담도, hepatobiliary               | 목          | 월, 목    |
|                      | 이유니 | 간, 담도, hepatobiliary, 담장, 화상, 복강경, 외상, 일반외과 | 월, 수       | 월, 수    |
| 대장항문외과<br>230-1400   | 김갑태 | 대장암 및 대장항문질환, 복강경, 담장                       | 월, 목       | 월, 목    |
|                      | 정신용 | 대장암, 항문질환, 담장, 소화외과, 일반외과                   | 화, 수, 금    | 화       |
| 상부위장관외과<br>230-1400  | 이종영 | 위암 및 상부위장관암, 복강경, 비만수술                      | 월, 목       | 월, 목    |
|                      | 양유성 | 상부위장관(위, 소장), 일반외과, 비만수술, 화상                | 수          | 월, 수, 금 |
| 유방·갑상선외과<br>230-1400 | 김철승 | 유방·갑상선                                      | 화, 금       | 화       |
|                      | 박영삼 | 유방·갑상선, 두경부                                 | 월, 수       | 월, 금    |
|                      | 김예정 | 유방·갑상선, 일반외과                                | 목          | 월, 수, 목 |
| 혈관이식외과<br>230-1400   | 김철승 |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혈관중재시술, 혈관·이식         | 화, 금       | 화       |
|                      | 한규담 |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혈관중재시술, 혈관·이식, 유방·갑상선 | 화, 수       | 금       |
|                      | 김미진 |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혈관중재시술, 혈관·이식, 유방·갑상선 | 월, 목       | 화       |
| 소아외과<br>230-1400     | 김예정 | 소아외과                                        | 목          | 월, 수, 목 |
|                      | 이대영 | 외국인 진료, 일반외과, 비만수술, 완화의료(호스피스)              | 화          | 목       |
| 응급의학과<br>230-8280    | 조정열 |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의상처치, 중독학                        | 월-일        | 월-일     |
|                      | 이동익 |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의상처치, 중독학                        | 월-일        | 월-일     |
|                      | 김수익 |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의상처치, 중독학                        | 월-일        | 월-일     |
|                      | 전우영 |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의상처치, 중독학                        | 월-일        | 월-일     |
|                      | 김호권 |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의상처치, 중독학                        | 월-일        | 월-일     |
|                      | 전용규 |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의상처치, 중독학                        | 월-일        | 월-일     |
|                      | 이상경 |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의상처치, 중독학                        | 월-일        | 월-일     |
|                      | 이진희 |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의상처치, 중독학                        | 월-일        | 월-일     |
|                      | 노윤채 |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의상처치, 중독학                        | 월-일        | 월-일     |
|                      | 박홍민 |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의상처치, 중독학                        | 월-일        | 월-일     |
| 이비인후과<br>230-1480    | 백종원 |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의상처치, 중독학                        | 월-일        | 월-일     |
|                      | 오근호 |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의상처치, 중독학                        | 월-일        | 월-일     |
|                      | 천경두 | 귀(중이염, 난청), 어지럼증                            | 월, 목       | 월, 목    |
|                      | 이시영 | 코(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어지럼증                      | 월, 화, 금    | 화       |
|                      | 한주희 | 두경부, 이비인후과 일반질환, 어지럼증                       | 수, 목       | 월, 수, 금 |

| 진료과                 | 전문의                 | 전문 진료 분야                                                         | 오전                                                                   | 오후         |
|---------------------|---------------------|------------------------------------------------------------------|----------------------------------------------------------------------|------------|
| 재활의학과<br>230-1460   | 윤용순                 | 뇌신경재활, 요통 및 운동치료, 하지교정, 소아재활, 부정렬증후군, 족부클리닉                      | 화, 금                                                                 | 월, 목       |
|                     | 윤석봉                 | 중추신경재활(뇌 및 척수손상), 근전도, 노인재활, 연하재활                                | 월, 수, 금                                                              | 월, 화, 수    |
|                     | 이광재                 | 뇌졸중재활, 심장재활, 신경근골격계통증, 오십견, 근골격초음파클리닉, 보톡스클리닉                    | 화, 수, 목, 금                                                           | 월, 화       |
|                     | 최종리                 | 노인재활, 연하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 월, 화, 목                                                              | 수, 목, 금    |
|                     | 유기배                 | 뇌신경재활, 소아재활, 족부클리닉, 통증재활, 호흡 / 연하재활, 근전도                         | 월, 수, 금                                                              | 화, 수, 금    |
|                     | 김은실                 |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 월, 목                                                                 | 월, 수, 목, 금 |
|                     | 이정후                 | 중추신경계 재활, 신경 근골격계통증, 인지 / 보조기                                    | 화, 수, 목                                                              | 화, 목, 금    |
|                     | 정신건강의학과<br>230-1550 | 최필려                                                              | 여성정신건강클리닉, 정신치료, 기분장애(우울&조울), 불안장애(공황장애, 사회공포증), 최병, 신체형장애, 불면증, 조현병 | 월, 화, 목    |
| 나의현                 |                     | 중독 정신장애, 청소년정신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사회공포증), 기분장애(우울), 불면증  | 화, 목                                                                 | 월, 화, 목    |
| 김철응                 |                     | 조현병, 조기정신병, 수면장애, 기립성뇌장애, 기분장애                                   | 월, 수, 목                                                              | 월, 화, 수    |
| 한명일                 |                     | 치매클리닉, 노인정신건강, 기립성 뇌기능저하,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 월, 화, 목                                                              | 목          |
| 정형외과<br>230-1430    |                     | 정의섭                                                              |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 월, 수       |
|                     | 신총식                 | 견·주관절,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 월, 목                                                                 | 월, 목       |
|                     | 김태호                 |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 화, 금                                                                 | 화, 금       |
|                     | 김종길                 | 외상, 족부, 족관절                                                      | 화, 목                                                                 | 화, 목       |
|                     | 김경태                 | 손목질환, 손목관절내시경, 외상, 스포츠손상                                         | 월, 수                                                                 | 월, 수       |
|                     | 송경진                 | 척추                                                               | 화, 목                                                                 | -          |
|                     | 박신선                 | 견·주관절(어깨, 팔꿈치, 관절)                                               | 수, 금                                                                 | 화, 수, 금    |
|                     | 김민우                 | 척추 및 하지 외상                                                       | -                                                                    | 목, 금       |
| 진단검사의학과<br>230-8751 | 김영옥                 | 임상미생물검사, 면역혈청검사, 분자세포유전학검사, 임상감염학검사                              | 월-금                                                                  | 월-금        |
|                     | 최인선                 | 분자생물학, 수혈의학, 특수화학, 조직접합성검사, 진단면역                                 | 월-금                                                                  | 월-금        |
|                     | 배태원                 |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 / 요검검, 검사정보화                                        | 월-금                                                                  | 월-금        |
| 치과<br>230-1540      | 송윤관                 |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 월, 화, 목, 금                                                           | 월, 화, 목, 금 |
|                     | 최현미                 |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 월, 수, 목                                                              | 월, 수, 목, 금 |
|                     | 박종덕                 |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 월, 화, 수, 금                                                           | 월, 화, 수, 금 |
| 피부과<br>230-1490     | 이진호                 | 감염성 피부질환, 습진질환(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피부종양                              | 화, 목, 금                                                              | -          |
|                     | 송지성                 | 일반 피부질환, 피부 레이저                                                  | 수                                                                    | 월-금        |
| 핵의학과<br>230-8780    | 이아진                 | 일반 피부질환(알레르기, 건선, 여드름), 피부 미용(Fraxel, CO2, Nd yag, Toning laser) | 월, 수, 목                                                              | -          |
|                     | 김민우                 | 근골격계의학, 중앙핵의학, 심장핵의학, 신경계핵의학, 소화기핵의학, 일반핵의학, 방사선면역검사             | 월-금                                                                  | 월-금        |
|                     | 문은하                 | 근골격계의학, 중앙핵의학, 심장핵의학, 신경계핵의학, 소화기핵의학, 일반핵의학, 방사선면역검사             | 월-금                                                                  | 월-금        |
|                     | 심장혈관외과<br>230-1410  | 최종병                                                              |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 대동맥, 선천성 심장병                                           | 화, 금       |
| 흉부외과<br>230-1400    | 서연호                 | 일반 폐질환, 다한증, 기흉                                                  | -                                                                    | 월          |



5498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Tel. 063. 230. 8114 | [www.jesushospital.com](http://www.jesushospital.com)

